

Editorial Comment: 성적 존재로서 노인

윤 가 현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남성위주의 사회에서는 남녀의 성욕이 서로 다르다고 믿었다. 여자의 성욕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미미하여 어느 상황에서나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반면, 남자의 성욕은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믿음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서구사회에서는 1960년대부터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의식을 타파하는 인권운동의 영향으로 여성도 남성과 다를 바 없는 성적인 존재(sexual being)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윤가현, 1998, 2001).

그 무렵 Neugarten(1967)은 중년기 여성들을 상대로 폐경과 관련된 질문을 했다. 폐경을 경험한 이후 자신에게 가장 좋지 않은 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성관계로 인한 기쁨이 줄어든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전체의 4%, 또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성관계로 인한 기쁨이 늘어난 것으로 대답한 비율이 전체의 3%에 불과했다. 즉 폐경의 경험이 성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는 답변이었다. 또 폐경이 성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답이 65%, 폐경 이후 성관계가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는 답이 18%, 폐경 이후 성관계 중요성이 더 줄어들었다는 답이 17%이었다.

그렇지만 그동안 여성이 나이가 들어서 폐경을 경험하면 성욕이 저하될 것으로 믿었다. 그러한 믿음은 바로 연령에 대한 차별의식에 기인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남성들과 비교하여 여성의 성욕을 인정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아직도 젊은이들과 비교하여 노인의 성욕을 제대

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생리적 차원의 성 기능은 저하될 뿐, 심리적 차원의 성욕은 커다란 변화가 없다. 그러나 생리학적 기능으로만 인간이 평가되지 않으며, 또 생리학적 기능도 무조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Masters와 Johnson(1966)에 의하면, 남성 노인의 성 기능을 70대나 80대까지 유지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생활을 주기적으로 유지하는가의 여부다. 여성 노인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효과적인 성적 자극에 대한 생리학적 반응은 조금씩 감소하지만, 주기적으로 성적 자극에 노출된다면 그 효과는 줄어든다. 결국 남녀 모두 주기적인 성적 자극에 노출될 수 있는 조건에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문화권에서는 평균수명과 결혼연령의 차이로 남성보다 생의 후반기에 여성이 홀로 살아갈 가능성은 평균 10년 정도에 해당된다 (윤가현, 2001). 노부부만 살고 있다가 여성들이 노인 단독으로 가구를 형성한 채로 살아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뜻이다. 과거와는 달리 근래에는 홀로 사는 남녀 노인들이 교우관계에서 연인관계로 발전시키고, 또 황혼기에 재혼에 성공하기도 한다. 이는 성적인 존재로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 반면 부부로 살다가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이혼을 결심한 여성들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전권에 대한 반향이며, 또 역시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윤가현, 2001).

참 고 문 헌

윤가현 (1998). *성 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윤가현 (2001). *문화 속의 성*. 서울: 학민사.

Masters, W. H., & Johnson, V. E. (1966). *Human sexual response*. Boston: Little, Brown.

Neugarten, B. L. (December 1967). A new look at menopause. *Psychological Today*, 1, 42-45, 67-69, 71.